화려한 몸짓 언어

『2001 춘천국제마임축제』

용 호 선 | 강원일보 기자



거리마임공연, 가말쵸바(일본)의 <코믹 콤비>, 춘천 한림대에서 공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세계 마임이 한자리에

말없는 몸짓들의 어울림이 꽃처럼 활짝 피어난 꿈과 환상의 잔치 『2001 춘천국제마임축제』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춘천시 신사우동 夢道理(몽도리) 마을에서 열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2001 춘천국제마임축제』는 축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고 아울러 몇가지 측면에서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올해 마임축제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지원받고, 지난해 강원도가 실시한 시 · 군 대표축제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준비과정에서부터 탄력있게 출발했다. 또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추천되어 ' 우수문화관광축제 '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직위원회 류진규 위원장은 " 아시아 최고의 마임축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스넬 토우인 프로젝트(캐나다) <돈.돈.돈>, 춘천 인형극장 ' 물의나라 꿈의나라 에서 공연

세계적인 마임을 한자리에 모으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우리 고유의 대동제를 재현해 보이겠다 " 는 자세로 추진했다.

올해 마임축제에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몽골 일본 등 해외 5개국 9개 극단을 비롯한 총 38개 극단 150여명의 전문마임인들이 참가했다. 또 프랑스 외국인학교를 비롯해 국내 장애학교, 5개 대학, 고교 마임 동아리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나, 프랑스 『미모스축제』와 영국 『런던마임축제』에 초청돼 개막공연을 갖는 등 세계 최고의 현대 마임 극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미친천사극단 *Ange de Fou*이 당초 초청대상에 들어있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오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축제는 5월 30일 오후 7시 춘천 지하상가 이벤트홀에서 개막공연과 성공기원 고사 등을 갖고 막을 올렸다. 개막식은 명동거리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비로 인해 부득이 지하상가에서 가졌지만 탤런트 최불암 심양홍 박은수, 국악인 신영희 등 ' 웰컴투코리아 ' 단원들이 함께 자리해 참석했던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개막 거리축제.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 춘천 지하상가에서 공연

자연환경을 이용한 공연무대

올해 마임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까지의 삼천동 어린이회관 시대를 접고 고슴도치섬(위도)과 인형극장 ' 물의나라 꿈의나라 ', 청소년 여행의 집, 도립화목원 등을 연계한 몽도리(夢道理)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다.

몽도리는 춘천에 거주하는 소설가 이외수가 지난 4월 출간한 우화집(寓畵集) 『외뿔』에 나오는 상상의 도깨비 마을이다. 그 축제마을 몽도리가 마임축제기간 동안 춘천 고슴도치섬을 비롯한 인근 공연장 지역과 연계한 지역에 명명돼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혀진 꿈과 환상, 희망을 되찾아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임축제의 주무대로 지난 5월 5일 개관한 전국 유일의 인형극장 ' 물의나라 꿈의나라 '는 최신 시설을 갖춰 연기자나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인근의 서정적인 자연환경(위도, 의암호)을 이용한 공연무대는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줬다.

해외 공연팀들이 예년 수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가운데 캐나다 스넬토우인 프로젝트팀은 현대사회가 지닌 무의식세계를 시적으로 압축해, 라이브음악 댄스 비디오 등을 조합한 신체극 <돈. 돈. 돈.>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조직위원회가 이번 축제의 주요 테마로 심혈을 기울인 <아시아적 몸짓> 프로그램도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킨 작품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와구리 유키오가 선보인 <나선(螺旋)의 꿈>은 일본 전통 몸짓인 부토를 바탕으로 신체가 춤을 만들어가는 오묘한 과정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또 조직위원장인 마임이스트 유진규와 무속인 이혜경이 황병기의 곡 <영목>을 무속적 몸짓과 마임으로 조화시켜 마임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무속인 이혜경은 이번 합동 공연 연습을 위해 한 달 동안 매일 밤 춘천을 오르내리는 집념을 보여주어 감동을 더했다.

한국 현대마임으로는 사다리움직임연구소(대표 임도완)의 <보이첵>과 호모루덴스 마임극단(대표 남긍호)의 <4 - 59번지>가 정통 마임의 진수를 선보이며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국제적 규모에 걸맞는 세계인의 예술축제로

『2001 춘천국제마임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도깨비난장>이었다.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토요일 밤과 일요일 오전까지 펼치는 도깨비들의 난장은 젊음과 낭만, 환상이 어우러진 ' 자유의 해방구 ' 역할을 했다. 올해는 고슴도치섬 특별무대에서 7천여명의 관객이 움집한 가운데 펼쳐져 현대축제의 전형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 단절과 고립 '' 자유와 해방 '의 주제로 열린 <도깨비난장>은 마임 무속굿 밴드 무용 연극 퍼포먼스 테크노 문학 토크쇼 등의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 무대에는 이야기꾼 전유성, 소설가 이외수, 철가방 프로젝트와 이남이 등이 출연해 일상에 찌든 가슴들을 시원하게 씻어줬다. 강물 위로 새벽안개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미명 속으로 번진 라이브음률은 관객들에게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추억으로 각인됐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도깨비열차(8량 전세)를 운행했으며 「지금 우리는 경춘선을 탄다」의 저자인 이명묵이 열차에 동승, 경춘선 여행의 묘미를 더하는 설명을 곁들여 도깨비나라로의 여행을 더욱 즐겁게 했다. 또한 <도깨비난장>은 인터넷 방송 디지원케이스(www.digiwon-cast.com) 야후 코리아(www.yahoo.co.kr)를 통해 전세계에 중계되기도 했다.

올해 춘천국제마임축제는 1만6천여명(조직위원회 발표)의 관객이 함께 해 세계적인 축제로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축제를 앞두고 춘천시가 유치한 전국기업인 마라톤대회가 축제 주행사장으로 향하는 도로를 사용하여 교통을 통제하게되자 조직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인들 간에 갈등을 빚는 오점을 남겼다. 결국 춘천시장이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외수)에 공식 사과하고 마라톤대회로 인한 교통통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으나 문화예술의 도시를 함께 가꿔야 하는 행정기관과 예술인들이 상호 불신하는 가운데 양쪽 모두 시민들로부터 곱지 못한 시선을 받기도 했다.

올해 춘천국제마임축제가 희망을 보인 것은 지역 대학이 마임축제를 적극 지원한 점을 들 수 있다. 강원대와 한림대가 각각 1천만원씩의 행사비를 지원했고 박용수 강원대 총장은 축제 마지막 날 조직위원회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2백여명



찾아가는 공연, 채송화 분장연구소 바디페인팅 <옛날 옛적에>
강원도립화목원에서 공연



개막 거리축제 미기와(일본) <아코디언 클라운> 춘천 지하상가에서 공연

을 초청, 격려하고 송별파티를 제공하는 훈훈한 자리도 마련했다.

또 춘천시는 마임축제 기간 동안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재미있는 춘천여행 시티투어 *City Tour*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므로서 춘천관광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기도 했다.

자연현상을 주요 터마로 이용하는 여타 축제와 달리 순수예술 기획축제로 우수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만큼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예진흥원 도축제평가단들이 수시로 축제현장을 찾아 평가자료를 수집하는 등 마임축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유진규 조직위원장이 밝혔듯 주요행사장을 옮기고도 무리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춘천의 무형자산인 자원봉사자 2백여명의 노고가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축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는 필수예산 부족현상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내년에는 보다 정리된 진행으로 지역축제로서 개성을 더욱 분명히 해 국제적 규모에 걸맞는 세계적 예술축제로 한걸음 더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